우암학원 창학 70주년
광주의 명문대학교 광주·전남 취업률 1위!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光州日報

www.tphtoyota.com
BEYOND POSSIBLE. BEYOND PLEASURE.
SMART HYBRID 4th GENERATION PRIUS
TOYOTA
광주전시장 062-371-8383 | 전주전시장 063-273-3222

대표전화 (062)222-8111 제21500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69 2021년 5월 4일 화요일 음력 3월 23일 kwangju.co.kr

전남, 사적 모임 6명 완화 하자마자 고흥 등 확진자 하루 24명 쏟아졌다

3일 오전 전남 고흥군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이 학교 재학생들이 전수 검사에 참여하고 있다. 고흥에서는 전날부터 이틀 동안 군청 공무원과 그 접촉자를 중심으로 확진자 15명이 발생,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됐다. /연합뉴스

동부권 중심 코로나19 급속 확산 … 어린이날·어버이날 앞두고 '비상'
일부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모임 6명으로 완화 부적절 조치" 지적도

전남에서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완화하자마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완화된 거리두기 상황 속에 고흥과 여수·순천을 중심으로 전남에서 신규 확진자 27명이 이틀새 발생한 데다, 사적 모임이 활발해지는 어린이날(5일), 어버이날(8일) 등 기념일이 다가오자 방역당국이 긴장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일부에서는 "모임 허용 인원을 6명으로 완화한 것은 부적절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3일 "전남에서 지난 2일 신규 확진자가 24명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18일 순천·여수 등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하루 확진자 28명 나온 이후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고흥에서 2명, 여수에서 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이에 따라 이틀간 발생한 확진자는 고흥 15명, 여수 5명, 순천 3명, 나주 3명, 장성 1명 등 총 27명이다.

특히 고흥의 경우 지난 1년여간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13명(해외 유입사례 2명 포함)보다 최근 2일 발생한 신규 확진자가 더 많아 군 전체가 패닉에 빠진 모습이다. 고흥에서 이틀간 나온 확진자의 절반이 넘는 8명이 공무원이라는 점, 첫 증세를 보인 시점이 지난달 25일이라는 점, 군청에서 이동 경로 등 관련 정보 제공을 제때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고흥군의 대응에 불만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나온다.

확진자가 군청(5명), 도화면사무소(2명), 소방서(1명), 초등학교(학생 4명) 등 곳곳에서 나오고, 최초 증세 발현이 1주일 전이라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자, 방역당국은 확산세를 조기 차단하기 위해 군청 직원 850여명, 고흥읍·도화면 주민 1만 6000명 등 모두 1만700여명에 대한 전수 진단 검사에 나섰다. 군청도 민원 대응 및 상황 유지에 필요한 일부 인원만 근무하고 나머지는 폐쇄 조치한 상태다.

여수와 순천지역도 심상치 않다. 두 지역에선 이틀 동안 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대부분 유흥주점 또는 노래방 종사자, 아르바이트생, 이용자로 조사됐다. 방역당국은 서울에서 4월 하순경 사업 관련 방문차 여수를 찾은 서울 구로구 주민(전남 1070번·2일 확진)에 의해 감염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접촉자와 확진자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증세 발현 시점이 지난 27일로, 나머지 7명의 확진자보다 앞선다는 점에서다. 혹시 모를 조용한 전파를 막기 위해 유흥업소, 노래방 업주와 종사자에 대한 전수 검사에도 착수했다.

정부 협의를 거쳐 3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에서 6인으로 확대한다는 발표를 내놓자마자,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자 전남도는 고흥군과 여수시와 협의를 거쳐 이들 두 지역의 방역을 강화했다. 두 지역 모두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6명에서 4명으로 재빨리 전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1.5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격상했다. 전남도는 또한 고흥군에 전남도 소속 역학조사관을 상주시키는 등 사태를 조기 수습하기 위해 방역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다수 확진자가 나오는 지역에 전남도 방역역량을 결집해 조기에 사태가 수습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나머지 20개 시군의 경우 도민 불편 해소와 지역 경제 어려움을 고려해 거리두기가 완화됐지만, 가정의 달을 맞아 이동과 접촉이 많아지는 만큼 도민 개개인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새 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 전 차관

영광 출신 … 광주 대동고 졸업
靑 "검찰개혁 소임 다해줄 것 기대"

김오수 후보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새 검찰총장에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3월 4일 임기를 4개월가량 앞두고 중도 사퇴한 지 60일 만이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달 29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 후보자와 함께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선정한 바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4명의 후보 중 김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다. 김 후보자는 전남 영광 출신으로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0기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의 보직을 거쳤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 차관으로 발탁돼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내리 보좌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오수 후보자는 법무 검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주요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왔다"며 "김 후보자가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낙점한 것은 그동안 이어 온 청와대·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이면서도 안정적인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검찰총장 후보는 물론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감사원 감사위원 등으로 거론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친(親)정부 인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김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23기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보다 윗 기수인 것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단점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차관으로 보좌한 경험이 큰 강점"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어렵고 힘든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직후 서울고검을 직접 찾아 취재진에 "겸허한 마음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은 서울고검에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김 후보자가 최종 임명되면 문무일 전 총장(광주)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두 번째 광주·전남출신 검찰총장이 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비 오는 어린이날 … 오후엔 맑아요

광주·전남은 4일 낮부터 내린 비가 어린이날인 5일 오전 중에 그치고 이날 오후에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다. 어버이날인 8일에는 맑은 날씨가 예상된다.

3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상해 부근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4일 낮 12시께 전남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광주·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이 비는 5일 새벽에 전남 서쪽지역부터 서서히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총 30~80㎜, 광주와 나머지 지역에는 10~4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광주·전남지역 4일 아침 최저기온은 11~15도, 낮 최고기온은 19~22도의 분포를 보이겠으며, 5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은 10~15도, 낮최고기온은 18~22도 수준을 보이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4일 밤부터 5일 새벽 사이에 전남 해안에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면서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제66회 호남예술제 - 피아노 입상자 ▶17면
굿모닝 예향 - 곽재구 시인·'화양연화' ▶18·19면

내일 어린이날 신문 쉽니다

사랑과 감사의 67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